

의령군,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순항



1 의령 미래교육테마파크 조감도
2 의령군청 전경

회 수용재결이 지난 2월 이뤄져 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확보된 상황이다. 경남도교육청에서도 그동안 건축설계와 전시콘텐츠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상반기 내 공사입찰 및 계약자 선정, 사업착공을 위해 의령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총사업비 467억원, 4만8천496㎡ 부지에 교육의 내일을 담은 '체험그릇', '공감그릇', '상상그릇'으로 구성된 3개동 건물과 내부 전시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요 전시 부문으로는 미래학교 전시체험관, 미래교실 배움터, 창의융합놀이터 등이 있다.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이다.

백삼중 군수 권한대행은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지원을 완벽히 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대표적인 미래교육 체험·전시시설로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전국 최초로 들어서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6월 사업이 착공될 전망이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중)은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경남도교육청과 협력해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착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건축허가(협의)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들을 조기에 완수해 6월 사업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미협의 토지 1필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



‘의령형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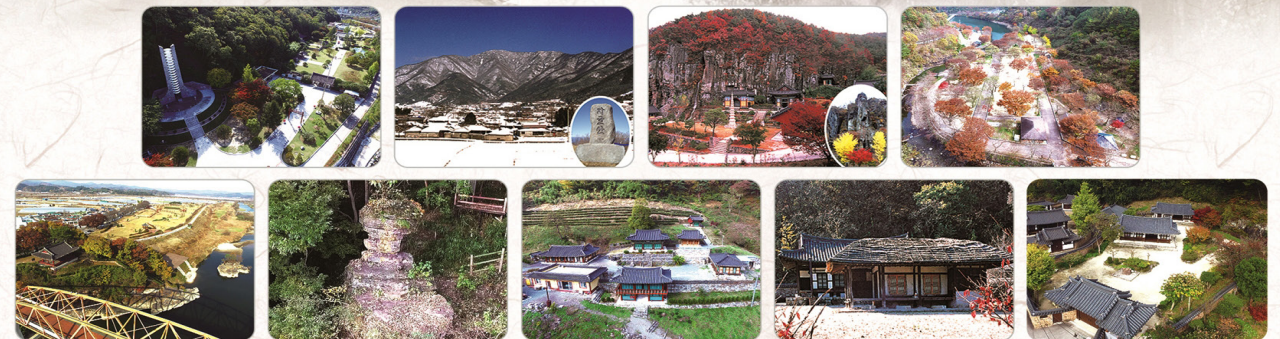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3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백삼중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3월 9일 '의령형 재난지원금' 접수창구인 의령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백 권한대행은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 접수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전체 군민의 73%인 1만9천470명이 20여억원을 수령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군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가 되살아나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미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의 향토음식

팔 앙금이 들어있는 쫄득한 **망개떡**, 특유의 맛을 자랑하는 **소바**, 국물이 진한 **소고기 국밥**, 육질이 좋은 **한우** 등은 풍성한 의령의 인심과 맛을 상징합니다.



제1경 충의사 | 제2경 자굴산 | 제3경 봉황대 | 제4경 벽계관광지
제5경 정암루 | 제6경 탑바위 | 제7경 수도사 | 제8경 백산 안희제 생가 | 제9경 호암 이병철 생가